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초등학생의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 행동에 미치는 영향 -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 *

유 성 희¹ · 이 동 형²

¹석포초등학교 교사, ²부산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The Effect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Offline Bullying and Cyber Bullying: Mediating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Yu, Seonghui¹ · Lee, Donghyung²

¹Sukpo Elementary School; ²Pusan National University, Dept. of Education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whether rejection sensitivity mediates the effect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offline and cyberbullying. For this purpose, the test data of 502 5th and 6th grade students (254 boys and 248 girls) in Busan were analyzed. **Method:**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WIN 19.0 to confirm the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to establish a mediation model in which the psychological control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perceived rejection in the path from offline to cyberbullying, and PROCESS macro 3.4.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program. **Result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fline bullying, cyber bullying, and rejection sensitivity.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offline and cyberbullying. **Conclusion:** The higher the psychological control of parents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higher the sensitivity to rejection, and the higher the behavior of off-line bullying and cyber bullying. And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n offline and cyber bullying was significant.

Key words :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fline and cyberbullying, Rejection Sensitivity

* 본 연구는 제1저자(2020)의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Lee, Donghyung. Pusan National University, Dept. of Education, Busandaehakro 63, Jangjeoundong, Busan, Korea, e-mail: lepsy@pusan.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2년 학교폭력실태조사 실시 이후 학교폭력은 줄어드는 양상을 띠었으나 2018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교육부, 2018). 교육부(2018)가 발표한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1.6%(6만명)로 전년대비 0.3% 증가하였다.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초등학교 3.6%, 중학교 0.8%, 고등학교 0.4%로 나타난다. 이를 작년과 비교하면 초등학교는 0.8%, 중학교는 0.1% 증가했고 고등학교는 동일하므로, 초등학생의 피해응답률의 증가세가 가장 높게 나왔다.

피해유형별 응답률은 언어폭력(35.6%), 집단따돌림(23.2%), 사이버 괴롭힘(8.9%)로 나타나서, 전년도와 비교하면 사이버 괴롭힘이 스토킹(8.9%)보다 높게 나타났고 신체적 폭행은 2017년부터 계속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괴롭힘의 유형인 신체적 폭행, 금품갈취 등의 비율은 낮아지고 있으나,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의 비신체적 폭력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보급률의 확대로 초등학생들의 SNS 사용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사이버 괴롭힘의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괴롭힘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은 다차원적이지만 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와의 관계경험이 또래 간 괴롭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이 거부적이고 제재적일수록 자녀가 또래집단 속에서 부적절하고 부정적이며 적대적인 상호작용을 하고(송경희, 이승연, 2009), 냉정하고 격리된 환경에서 성장한 아동은 학교에서의 또래 괴롭힘 현상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되기 쉽다는 연구결과도 있다(Eisenbraun, 2007). 부모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또래 간 공격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정서적 학대는 또래 관계에서 위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문재화, 2009). 그러므로 부모의 양육태도는 초기 청소년기의 정서, 행동문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가 위기를 경험하는 청소년의 긍정적인 보호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위험요인이 되기도 한다(전숙영, 2007).

부모의 양육태도는 크게 나누어 부모지지와 부모통제로 분류할 수 있는데(Barber, 1996), 부모지지는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태도로 자녀의 적응에 일관성있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부모통제는 행동적 통제와 심리적 통제가 구분없이 사용되어 일관된 연구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행동적 통제와 심리적 통제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Barber, 1996).

행동적 통제는 일관성 있게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자녀의 일상적인 생활이나 규칙 지키기 등을 부모가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양육방식이다. 이러한 행동적 통제는 자녀의 사회적

책임을 기르고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길러주기 때문에 자녀교육에 필요한 부분이다. 반면에 심리적 통제는 자녀가 부모가 기대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을 때 부모가 애정을 철회하거나 죄의식을 갖게 하는 식으로 자녀의 감정과 생각을 조정하고 자녀와의 애착이나 유대관계를 의도적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수준이 높을 때 자녀에게서 내재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가 높게 나타난다(Barber & Harmon, 2002).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로 하여금 거부에 민감하고 쉽게 거절당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거부민감성을 형성하고 발달시킨다(신희수, 안명희, 2013). 거부민감성이란 의미있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거부가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더 불안해하고 거부를 더 쉽게 지각하고 과민하게 반응행동을 하는 인지, 정서적 처리 성향을 말한다(Downey & Feldman, 1994). 거부민감성 지각 수준이 높은 아동들은 중립적이거나 모호한 자극이 주어지는 경우에도 지각되는 단서를 자신에 대한 거부 또는 거절로 인식하고 타인의 행동을 자신에 대한 적대적인 의도를 가진 행위로 간주하여 타인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드러내기도 한다(홍상황, 이경연, 2013).

공격성과 아동, 청소년의 거부민감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두 변인 간에 정적 상관이 나타나고 있으며, 거부민감성 수준이 높을수록 거부당하는 것에 분노를 느끼고 높은 공격성을 보인다(김선미, 홍상황, 2014). 공격성이 괴롭힘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 중의 하나이며(이상균, 2005; Hubbard, 2001), 사이버 괴롭힘이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공격적 행동을 지칭하므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거부민감성을 통하여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 행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사이버 괴롭힘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김영은, 오인수, 송지영, 2019; 김은정, 유형근, 남순임, 2015). 그러나 사이버 괴롭힘을 예측할 수 있는 개인의 내적변인과 연관된 연구는 아직도 적은 편이며, 대부분의 연구가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 사용연령이 점차 저연령화되고 있고 사이버 괴롭힘이 오프라인 괴롭힘보다 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피해자에게 남길 수 있으며(Wang, Nansel, & Iannotti, 2011) 사이버 괴롭힘 피해사례에서 초등학생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곽미성, 2015). 그러므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 행동 문제에 영향을 주는 환경변인(가족 및 부모 관련변인)과 심리적 변인을 밝히고 그러한 환경변인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초등학생의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거부민감성이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초등학생의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내적변인과 환경적 변인에 대한 메카니즘을 밝히고자 한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거부민감성을 매개로 하여 초등학생의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실증적 검증작업을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 행동 및 거부민감성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아동의 거부민감성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 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셋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 및 사이버 괴롭힘 행동 및 거부민감성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성별 차이는 있는가?

2. 용어의 의미

1) 오프라인 괴롭힘

괴롭힘이란 힘의 불균형이 존재된 또래관계에서 한명 또는 여러명의 학생들이 방어능력이 없는 한명의 학생에게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공격행동(Olweus, 1994)을 의미한다. 오프라인 괴롭힘이란 사이버 공간이 아닌 학교와 같은 현실공간에서 일어나는 신체 및 언어적 공격행동과 관계적 공격행동을 포함하는 괴롭힘이다.

2)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 괴롭힘이란 일반적으로 이메일, 문자메세지, 동영상, SNS 등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욕설, 명예훼손, 비방, 위협, 스토킹 등을 가하여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의미한다(Hinduja & Patchin, 2007). 연구자에 따라서는 사이버 폭력 또는 사이버 불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3)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모의 심리적 통제란 자녀의 욕구는 무시하고 자녀의 생각이나 감정 등과 같은 자녀의 심리적인 부분을 부모가 통제하거나 마음대로 부리는 것이다 (Barber, 1996). 이러한 심리적 통제는 부모가 희망하는 대로 자녀가 행동하지 않을 경우에 자녀를 상대로 애정을 철회하거나 자녀로 하여금 죄책감을 유발하게 하는 등의 심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자녀의 심리적 발달을 저해하며 부모가 지나치게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심리적 자율성을 감소시키고 자녀가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저하되도록 한다(Barber, & Harmon, 2002).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Barber & Hamon, 2002). 첫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통제하는 기술적 전략으로 나타난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자기 기준에 맞추어 설정하려고 자녀에게 애정 철회하기, 죄책감 유발하기, 불안 조장하기 등과 같은 방법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정서적 균형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다. 둘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표현기회를 빼앗는다. 언어표현의 제한은 자녀로 하여금 주체적으로 자신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억압하게 된다. 셋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부모의 감정적인 처벌, 지나친 기대, 개인적인 공격과 적대적인 무관심

등이 뒤섞여서 나타난다.

4) 거부민감성

거부민감성이란 대인관계 상황에서 타인으로부터 거절당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불안해하고 사소하고 모호한 단서에도 거부로 쉽게 지각하며 거절당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처리과정을 말한다(Downey & Feldman, 1996).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높은 불안과 걱정을 가지며 거절당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반면에 거부민감성이 낮은 사람들은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낮은 불안과 타인에게 수용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향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홍상환, 이경연, 2016).

인간은 끊임없이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그 속에서 소속감과 존재감을 형성하며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거절당하지 않고 수용받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의 주요 동기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대인관계 속에서 누구나 인간은 어느 정도 거부당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거부를 당했을 때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부에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여 대인관계의 문제를 겪게 되는 사람도 있다(박명진, 양난미, 2017).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거부가 짐작되는 상황에서 거부당하지 않기 위하여 타인과의 관계에서 보다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Downey et al., 2000). 거부민감성이 초기 청소년에게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타인에게 지지를 구해야 할 경우에 스스로 그 기회를 피하고 좌절하게 만든다는데 있다(Downey & Feldman, 1996).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의 5개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55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48부를 제외하고 모두 502명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이 254명(50.6%)이고 여학생이 248명(49.4%)이고, 학년 구성은 초등 5학년이 234명(46.6%)이고 6학년이 268명(53.4%)이다.

2. 측정도구

1) 오프라인 괴롭힘 행동과 사이버 괴롭힘 행동

오프라인 괴롭힘 가해척도는 Salmivalli, Lagerspetz, Björkqvist와 Kaukiainen(1996)이 개발한 참여자 역할 설문지를 번역하고 자기보고식으로 수정한 서미정 (2008)의 괴롭힘 참여자 역할 척도 중에서 가해행동을 측정하는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지난 2-3개월’ 동안 다른 사람을 괴롭힌 경험 정도를 측정하는 내용으로 직접적인 괴롭힘 5개 문항과 간접적인 괴롭힘 2개 문항으로 총 7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없다’, ‘1-2회’, ‘3-6회’, ‘7-10회’ 그리고 ‘11회 이상’과 같이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오프라인 괴롭힘 행동의 빈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서미정(2008)의 연구에서 괴롭힘 가해 행동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75였고, 본 연구에서는 .79로 나타났다.

<표 II-1> 오프라인 괴롭힘 척도 신뢰도

변인	문항수	신뢰도
오프라인 괴롭힘	7	.79

사이버 괴롭힘 척도는 청소년들의 사이버 괴롭힘의 가해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Hinduja와 Patchin(2008)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김은경 (2012)이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모두 13개의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최근 2-3개월 동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다른 사람을 괴롭힌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각 문항은 ‘전혀 없다’, ‘1-2회’, ‘3-6회’, ‘7-10회’ 그리고 ‘11회 이상’과 같이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사이버 괴롭힘 가해 행동 경험이 많음을 나타낸다. 문항의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온라인에서 누군가를 따돌리거나 괴롭힌 적이 있다’,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거나 놀리려고 SNS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등이 있다. 김은경(2012)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2로 나타났다.

<표 II-2> 사이버 괴롭힘 척도 신뢰도

변인	문항수	신뢰도
사이버 괴롭힘	13	.82

2) 부모의 심리적 통제

Barber(1996)가 개발한 심리통제척도를 전숙영(2007)이 한국판으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여 부

모의 심리적 통제를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가 아동의 심리적 영역을 통제하는 정도에 대한 자녀의 자기보고식 설문방법으로 자기표현 제한, 감정 불인정, 비난, 죄책감 유발, 애정 철회, 불안정한 감정기복의 6개 하위요인으로 척도가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우리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얘기를 할 때 귀 기울여 듣지 않으시고 다른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 ‘우리 아버지(어머니)는 나의 생각과 감정을 바꾸려고 하신다’, ‘우리 아버지(어머니)는 내게 잘 해 주시다가도 화를 내실 때가 많다’ 등의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의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 모가 자녀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기회를 억제하고 감정을 수용하지 않으며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등 자녀의 심리적 자유를 통제하고 있다고 자녀가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척도 점수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각각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얻은 점수의 평균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산출한 16개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아버지의 경우 .84, 어머니의 경우 .86으로 나타났다.

<표 II-3> 부모의 심리적 통제 문항구성 및 신뢰도

변인	문항내용	문항 수	신뢰도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의 심리적 통제	16	.84
	모의 심리적 통제	16	.86
전체		32	.92

3) 거부 민감성

박지윤과 정영숙(2008)이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수정한 Downey 등(1998)의 아동용 거부민감성 질문지(CRSQ)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CRSQ는 거부불안 민감성, 거부분노 민감성, 거부우울 민감성의 3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12가지의 거부상황이 제시되며 교사관련 상황 4가지, 또래관련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각 상황별로 4문항씩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상황별로 네 문항씩 총 4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동이 거부가 예상되는 경우에 경험하는 ‘불안’, ‘분노’, ‘우울’의 예기불안정도와 거부당할 것에 대한 예상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아주 많이 그렇다(6점)’의 6점 척도에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각 상황에서의 거부 예기불안 정도와 거부예상 정도는 곱해지며, 이 때 12가지 상황 점수들의 평균값이 개인의 거부민감성 점수가 된다. 이에 따라 가능한 거부민감성 점수의 범위는 최저 3점에서 최고 108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거부민감성 총점의 평균값을 개인의 거부민감성 점수로 사용할 것이다. 거부민감성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상황에서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할 것

에 대해 불안해하고 거부를 쉽게 지각하며 과민하게 반응함을 의미한다. 박지윤과 정영숙(2008)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84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6으로 나타났다.

〈표 II-4〉 거부민감성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내용	문항 수	신뢰도
거부불안민감성	거부를 예상하면서 느끼는 불안	12	.93
거부분노민감성	거부를 예상하면서 느끼는 분노	12	.91
거부우울민감성	거부를 예상하면서 느끼는 우울	12	.93
전체		48	.96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9.0과 PROCESS macro 3.4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의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 행동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 거부민감성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 측정 변인 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 거부민감성,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 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의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Hayes(2013)가 제안한 PROCESS macro 프로그램의 매개효과 검증절차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분석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 Baron과 Kenny의 방법 (Baron & Kenny, 1986)에 의하면 매개변인이 매개변인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가설검정은 3개의 단계를 차례로 검증함으로써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검증 방법처럼 가설검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오류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른 대체방법의 사용이 권장되고 있다(Hayes, 2013). 또한 매개효과(ab)의 표본분포의 정규성을 가정해야 하는 Sobel 검정 대신 부트스트랩 신뢰구간방법을 이용하여 매개 분석을 실시할 것이 권장되고 있다. Sobel 검정보다 달리 부트스트래핑은 ab의 표본분포의 정규성을 가정하지 않고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은 ab의 표본분포의 비정규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Sobel 검정보다 더 정확한 추론을 할 수 있고 검정력도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Hayes,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PSS PROCESS macro에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사용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본 논문에서 측정된 변인은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거부민감성,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 행동으로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해보았고, 연구대상자들의 성별에 따라 주요 변인들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각 변인에 대한 t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III-1>에 나와있다.

<표 III-1>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N=502)

변인	남 (n=254)		여 (n=248)		t
	M	SD	M	SD	
부모의 심리적 통제	22.84	5.09	22.58	5.18	0.55
거부민감성	13.30	8.45	18.03	12.20	-5.06***
오프라인 괴롭힘	13.03	5.11	12.38	4.63	1.49
사이버 괴롭힘	14.79	3.63	14.54	3.42	0.77

* $p < .05$, ** $p < .01$, *** $p < .001$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평균 차이를 검증한 결과 거부민감성 변인을 제외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 오프라인 괴롭힘, 사이버 괴롭힘 변인에서는 남녀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거부민감성의 경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 = -5.06, p < .001$).

2. 변인 간 상관관계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의 거부민감성이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의 기초 분석으로써 먼저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III-2> 측정 변인들 간의 적률 상관계수

(N=502)

	부모의 심리적 통제	거부민감성	오프라인 괴롭힘	사이버 괴롭힘
부모의 심리적 통제	-			
거부민감성	.42**	-		
오프라인 괴롭힘	.35**	.32**	-	
사이버 괴롭힘	.20**	.31**	.40**	-

** $p < .01$

본 연구의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독립변인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거부민감성($r = .42, p < .01$), 오프라인 괴롭힘($r = .35, p < .01$), 사이버 괴롭힘($r = .20, p < .01$)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으면 아동의 거부민감성 지각 수준이 높고, 오프라인 괴롭힘과 사이버 괴롭힘 가해 행동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속변인인 오프라인 괴롭힘은 매개변인인 거부민감성($r = .32, p < .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사이버 괴롭힘도 거부민감성($r = .31, p < .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거부민감성이 높을 때 오프라인 괴롭힘과 사이버 괴롭힘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 종속변인인 오프라인 괴롭힘과 사이버 괴롭힘($r = .40, p < .01$)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여 오프라인 괴롭힘과 사이버 괴롭힘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측정모형 검증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의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3)가 제안한 PROCESS macro 프로그램의 매개효과 검증절차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다.

1)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오프라인 괴롭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오프라인 괴롭힘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3)가 제안한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이용하였고, 부트스트랩 샘플은 5,000개로 지정하였으며,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III-3>과 같다.

〈표 III-3〉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오프라인 괴롭힘 사이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변수	β	se	t 값	p	LLCI*	ULCI**
매개변수 모형(종속변수: 거부민감성)						
상수	-4.42	1.98	-2.29	.03	-8.30	-.54
부모의 심리적 통제	.88	.09	10.41	.00	.72	1.05
종속변수 모형(종속변수: 오프라인 괴롭힘)						
상수	5.54	.92	6.06	.00	3.74	7.34
부모의 심리적 통제	.25	.04	5.79	.00	.17	.33
거부민감성	.10	.02	4.639	.00	.06	.14

* L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 U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거부민감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beta=.88, p<.001$), 거부민감성은 오프라인 괴롭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어($\beta=.10, p<.001$) 거부민감성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오프라인 괴롭힘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오프라인 괴롭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2, p<.001$).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거부민감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거부민감성은 오프라인 괴롭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점, 그리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오프라인 괴롭힘 간 경로의 총효과가 직접효과보다 큰 점은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거부민감성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오프라인 괴롭힘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표 III-4〉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오프라인 괴롭힘 사이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효과	β	se	LLCI*	ULCI**
총효과	.33	.04	.26	.41
직접효과	.25	.04	.17	.33
간접효과	.08	.02	.04	.13

* L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 U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오프라인 괴롭힘의 간접효과를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

<표 III-4>와 같이 총효과의 크기는 .33(.26~.41)로 95.0% 신뢰구간에서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효과는 .25(.17~.33)로 신뢰구간 95%에서 0의 값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의 경우 .08(.04~.13) 부트스트랩의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검증되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이버 괴롭힘 간 경로에서 거부민감성이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의 사이버 괴롭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사이버 괴롭힘 사이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III-5>와 같다.

<표 III-5>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이버 괴롭힘 사이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변수	β	se	t 값	p	LLCI*	ULCI**
매개변수 모형(종속변수: 거부민감성)						
상수	-4.42	1.98	-2.24	.03	-8.30	-.54
부모의 심리적 통제	.88	.08	10.41	.00	.72	1.05
종속변수 모형(종속변수: 사이버 괴롭힘)						
상수	11.92	.68	17.46	.00	10.58	13.26
부모의 심리적 통제	.06	.03	1.84	.07	-.004	.12
거부민감성	.09	.02	5.83	.00	.059	.12

* L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 U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이버 괴롭힘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이용하였고, 부트스트랩 샘플은 5,000개로 지정하였으며,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III-5>와 같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거부민감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beta = .88, p < .001$), 거부민감성은 사이버 괴롭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어($\beta = .09, p < .001$) 거부민감성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이버 괴롭힘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그러나 분석결과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이버 괴롭힘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6, p > .05$).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거부민감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거부민감성은 사이버 괴롭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통해 거부민감성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이버 괴롭힘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표 III-6>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이버 괴롭힘 사이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효과	β	se	LLCI*	ULCI**
총효과	.14	.03	.08	.20
직접효과	.06	.03	.00	.12
간접효과	.08	.03	.03	.15

* L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 U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이버 괴롭힘의 간접효과를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 <표 III-6>과 같이 총효과의 크기는 .14(.08~.20)로 95.0% 신뢰구간에서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효과는 .06(.00~.12)로 신뢰구간 95%에서 0의 값이 존재하여 유의성이 없었다. 간접효과의 경우 .08(.03~.15) 부트스트랩의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검증되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이버 괴롭힘 간 경로에서 거부민감성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 행동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거부민감성,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 행동 간의 상관을 알아보았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거부민감성,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 행동에서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아동의 거부민감성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초등학생의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 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의 분석결과를 보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 오프라인 괴롭힘, 사이버 괴롭힘, 거부민감성 간에는 다음과 같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첫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오프라인 괴롭힘 및 사이버 괴롭힘 사이에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오프라인 괴롭힘 가해 행동 및 사이버 괴롭힘 가해 행동이 증가함을 의미하는데,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같은 부정적인 양육방식이 아동

의 공격성 및 또래 간 괴롭힘 가해 행동을 증가시킨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문재화, 2009; 송경희, 이승연, 2009; 전숙영, 2007; Eisenbraun, 2007). 이수경 등(2012)은 연구에서 오프라인 괴롭힘과 사이버 괴롭힘이 서로 독립적이기보다는 상호 연계되어 있음을 언급하였는데, 이를 통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 수준이 높으면 아동의 오프라인 괴롭힘 가해 행동과 사이버 괴롭힘 가해 행동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거부민감성 사이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난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거부민감성의 발달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같은 부정적인 양육방식과 거부민감성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이경미, 2016; 홍상황, 이경연, 2016) 결과와 일치한다.

셋째, 거부민감성과 오프라인 괴롭힘 및 사이버 괴롭힘 사이에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난다. 이는 아동의 거부민감성 지각 수준이 높을수록 오프라인 괴롭힘 가해 행동과 사이버 괴롭힘 가해 행동이 높은 수준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거부민감성이 괴롭힘 상황에서 가해 행동을 예측하는 요인이며(Downey, Lebolt, Rincon, & Freitas, 1998), 괴롭힘 가해 행동의 중요한 예측변인인 공격성과 거부민감성 간의 정적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이경미, 박주희, 2016; 홍상황, 이경연, 2013)를 토대로, 아동의 거부민감성이 오프라인 괴롭힘과 사이버 괴롭힘 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넷째, 오프라인 괴롭힘과 사이버 괴롭힘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난다. 이는 오프라인 괴롭힘 가해 행동 수준이 높을수록 사이버 괴롭힘 가해 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이버 괴롭힘과 오프라인 괴롭힘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이수경, 오인수, 2012)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즉, 오프라인 공간에서 괴롭힘 가해 행동을 보이는 아동은 사이버 공간에서도 괴롭힘 가해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현재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괴롭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오프라인 괴롭힘 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 통제, 오프라인 괴롭힘, 사이버 괴롭힘, 거부민감성 각 변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프라인 괴롭힘과 사이버 괴롭힘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오프라인 괴롭힘의 경우 남학생의 평균 점수가 여학생의 평균 점수보다 다소 높게 나왔지만 유의미한 성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괴롭힘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이수경, 오인수, 2012; Olweus, 1994)과 상이한 결과이다. 사이버 괴롭힘의 경우도 유의미한 성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 괴롭힘 경험 실태를 조사한 연구 결과(이수경, 오인수, 2012)와 같은 결과이나 여러 선행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괴롭힘의 차이에 대해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다. 남학생에게서 사이버 괴롭힘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으며(오인수,

2011; Li, 2006),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온라인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높아 여학생에게서 사이버 괴롭힘이 더 많이 드러난다는 결과도 있었다(Kowalski & Limber, 2007).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인 남학생과 여학생의 오프라인 괴롭힘과 사이버 괴롭힘의 지각 수준이 매우 낮은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이들이 속한 학교 및 사회 환경이 비교적 괴롭힘 행동 발현 빈도가 낮은 지역에 속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제한적 특성이 각 변인의 성 차이와 관련하여 부족한 설명력을 가질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둘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서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 지각과 관련한 선행연구 중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더 높게 지각한다는 연구(이경미, 박주희, 2016)도 있지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에 대해 더 높게 지각한다는 연구(하수진, 2017) 결과도 있어 부모의 심리적 통제 지각 수준에 있어 남녀 성차는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인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부모의 심리적 통제 수준을 다소 낮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학생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평균 점수가 미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의미한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거부민감성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유의미한 성차가 있었는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거부민감성을 더 높은 수준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남학생보다 높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이경미, 2016; 이승연 등, 2015; Downey & Feldman, 1996).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예민하기 때문에 모호한 상황에서도 거부를 더욱 쉽게 지각하며 그로 인한 불안이나 분노,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도 더 민감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처럼 거부민감성 지각 수준에 있어 일관되게 보고되는 성 차이를 통해 거부민감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성 차이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할 수 있다.

넷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오프라인 괴롭힘 사이에서 거부민감성은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거부민감성 수준이 높아지고 오프라인 괴롭힘 가해 행동이 높아질 수 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고 그 기대를 자녀가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부모가 자녀에 대한 애정을 철회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등의 심리적 통제를 드러내었을 때, 자녀는 학교와 같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한 학생에게 반복적, 지속적으로 공격행동을 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초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의 오프라인 괴롭힘 가해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의 심리적 통제 수준을 낮추어야 하며,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감소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차선택으로 아동의 거부민감성 수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이버 괴롭힘 사이에서 거부민감성은 완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심리적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거부민감성 수준이 높

아지고 이를 매개로 아동의 사이버 괴롭힘 가해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고, 그러한 기대를 자녀가 만족시키지 못하면 부모는 자녀에 대한 애정을 철회하거나 실망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등의 심리적 통제를 드러내면, 아동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사이버 상에서 타인을 괴롭히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것은 이 경로에서 사이버 괴롭힘 가해 행동에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고, 거부민감성을 통해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오프라인 괴롭힘의 경우 부분매개효과 모델이, 사이버 괴롭힘의 경우 완전매개 모델이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전자의 경우 직·간접 효과가 모두 유의하므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아동의 거부민감성을 높임으로써 오프라인 괴롭힘 가해 행동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기도 하지만, 심리적 통제 자체가 아동의 괴롭힘 행동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녀의 괴롭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리적으로 통제적인 부모 밑에서 양육된 아이들은 부모의 양육행동을 보며 성장한 까닭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부모가 보이는 행동을 재현할 수 있다. 즉, 학교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관계적으로 혹은 언어, 물리적으로 통제하는 부모의 대인통제적 행동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사이버 괴롭힘의 경우에는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하므로, 부모의 행동을 통해 학습한 행동이 그대로 재현되기는 어려울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직접효과를 갖기보다는 간접적으로, 거부민감성을 통해서만 사이버 괴롭힘에 영향을 끼치게 됨을 추론해 볼 수 있다.

2. 결론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가정 환경적 요인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개인 내적 요인인 거부민감성은 아동의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 행동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의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부모교육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 수준을 낮추어야 한다. 또한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내담자의 거부민감성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연구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가 가지는 몇 가지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오프라인 괴롭힘 행동과 사이버 괴롭힘 행동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인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거부민감성만을 매개 변인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수경과 오인수(2011)의 연구에서 사이버 괴롭힘 가해행동을 가장 높게 예측하는 변인은 오프라인 괴롭힘 가해경험이고, 오프라인 괴롭힘의 가해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사이버 괴롭힘 가해경험과 공격성 및 죄책감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한편 유선미 등(2017)은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예측 변인에 대한 연구에서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성별, 분노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이처럼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개인적 요인 및 사회·환경적 요인과 관련한 변인들을 탐색하고 이들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괴롭힘 가해 행동에 대해서만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문제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괴롭힘 피해와 괴롭힘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하는 집단으로 나누어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두 괴롭힘의 가해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탐색하고, 이러한 가해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절변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프라인 괴롭힘에 비해 사이버 괴롭힘은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사이버 괴롭힘이 가지는 특유의 빠른 파급력으로 인해 괴롭힘 행동이 증가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 그러므로 교사나 상담자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사이버 상에서의 괴롭힘까지 포함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 및 내담자에게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지도함으로써 괴롭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곽미성 (2015). 전통적 괴롭힘과 사이버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특성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부 (2018).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세종: 교육부.
- 김선미, 홍상환 (2014). 아동의 거부민감성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인식과 표현 능력의 매개효과. 초등상담연구, 13(4), 409-429.
- 김영은, 오인수, 송지연 (2019). 전통적 괴롭힘과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인의 방어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교육과학연구, 50(4), 31-55.
- 김은경 (2012). 청소년의 사이버 불링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정, 유형근, 남순임 (2015). 초등학교 고학년의 사이버 괴롭힘 예방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敎員敎育*, 31(2), 179-198.
- 문재화 (2009). 아동의 유형별 학대경험이 행동문제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명진, 양난미 (2017). 대학생 거부민감성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1), 103-127.
- 박지윤, 정영숙 (2008). 아동의 거절상황 구성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2), 15-37.
- 서미정 (2008). 방관자의 집단 특성에 따른 또래괴롭힘 참여 역할행동. *아동학회지*, 29(5), 79-96.
- 송경희, 이승연 (2009). 청소년의 마음읽기 능력과 또래괴롭힘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3), 105-124.
- 신희수, 안명희 (2013).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3), 621-641.
- 오인수 (2011). 초등학생 온라인 괴롭힘의 실태 및 오프라인 괴롭힘과의 비교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2(3), 75-98.
- 이경미, 박주희(2016).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남녀 아동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과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兒童學會誌*, 37(4), 31-46.
- 이상균 (2005). 청소년의 또래폭력 가해경험에 대한 생태 체계적 영향 요인. *한국아동복지학*, 19, 141-170.
- 전숙영 (2007). 어머니의 심리통제 및 아동의 행동적 자율성과 자기 통제력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4), 169-179.
- 하수진 (201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연구: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상환, 이경연 (2013). 또래괴롭힘 피해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또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4(2), 283-315.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 3298-3319.
- Barber, B. K., & Harmon, E. (2002). Violating the sel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B. K. Barber (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pp.15-52). Washington, DC: APA.
- Downey, G., & Feldman, S. (1994). Rejection sensitivity as a mediator of the impact of childhood exposure to family violence on adult attachment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6, 231-147.

- Downey, G., Lebolt, A., Rincon, C., & Freitas, A. L. (1998). Rejection sensitivity and children's interpersonal difficulties. *Child Development, 69*, 1074-1091.
- Eisenbraun, K. D. (2007). Violence in schools: Prevalence, prediction, and prevention.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2*, 459-469.
- Hayes, A.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 Hinduja, S., & Patchin, J. W. (2007). Off-line consequence of online victimization: School violence and delinquency. *Journal of School Violence, 6*(3), 89-112.
- Hinduja, S., & Patchin, J. W. (2008). Cyberbullying: An exploratory 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offending and victimization. *Deviant Behavior, 29*, 1581-1590.
- Hubbard, J. A. (2001). Emotion expression processes in children's peer interaction: the role of peer rejection, aggression, and gender. *Child Development, 72*, 1426-1438.
- Kowalski, R., & Limber, S.(2007). Electronic bullying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1*, 22-30.
- Li, Q.(2006). Cyberbullying in schools: A research of gender difference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7*(2), 157-170.
- Olweus, D. (1994).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1171-1190.
- Salmivalli, C., Lagerspetz, K., Björkqvist, K., & Kaukiainen, A. (1996). Bullying as a group process: Participant roles and their relations to status with in the group. *Aggressive Behavior, 25*, 97-111.
- Wang, J., Nansel, T. R., & Iannotti, R. J.(2011). Cyber and traditional bullying: Differential association with depression.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8*, 415-17.

국문초록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초등학생의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 행동에 미치는 영향 -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

유 성 희¹ · 이 동 형²

¹석포초등학교 교사, ²부산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연구목적: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 행동 간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 행동, 거부민감성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아동의 거부민감성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 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연구방법:** 부산 지역 소재 5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502명(남학생 254명, 여학생 248명)의 검사자료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 분석은 SPSS WIN 19.0을 사용하여 변인 간의 상관을 확인하고,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오프라인 괴롭힘과 사이버 괴롭힘에 이르는 경로에서 거부민감성이 매개하는 매개모형을 설정하고, PROCESS macro 3.4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오프라인 괴롭힘 및 사이버 괴롭힘, 거부민감성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게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거부민감성이 높고, 오프라인 괴롭힘 및 사이버 괴롭힘 행동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거부민감성을 통해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오프라인 괴롭힘에 끼치는 직접경로와 거부민감성을 통해 오프라인 괴롭힘에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이버 괴롭힘의 관계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거부민감성을 통해서 사이버 괴롭힘에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가정 환경적 요인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개인 내적 요인인 거부민감성은 아동의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 행동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의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부모교육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부모의 심리적 통제 수준을 낮추어야 한다. 또한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아동의 거부민감성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부모의 심리적 통제, 오프라인 및 사이버 괴롭힘 행동, 거부민감성

투고일 : 2020. 05. 29. / 심사일 : 2020. 06. 05. / 게재확정일 : 2020. 06. 25.